

慶南大, 캘리포니아주립大와 학술교류협약 및 한·중 학술 심포지움 개최

경남대는 지난 11월 8일 동교를 방문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제임스 클리어리 총장과 「한국인을 위한 영어교육」, 「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양교의 교수·학생을 교환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이에 따른 숙소 및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동교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국인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14일에는 동교 본관 회의실에서 동교 경상대학교와 노동복지연구소 주최로 제1회 한·중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1주제 「중국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은 이동진(중국연변대 경제학부) 교수가, 2주제 「한·중 경제협력과 외국인 투자 환경」은 이동욱(중국연변대 세계경제)교수가, 3주제 「지구 사회복지의 경제적 분석」은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교수가, 4주제 「공동결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정병수(성균관대 경제학) 교수가 발표한 뒤 각 주제에 대해 고현욱(경제학), 윤진기(법학), 안승욱(경제학), 임영일(사회학)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高麗大, 호주 Griffith大와 학술교류 협정 및 민족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 개최

고려대는 지난 10월 15일 호주 Griffith大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교수·학생 교류와 학술자료 교환을 통해 양교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번 체결한 협정서에는 “상대방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모교에서 인정받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11월 13일 동교 여학생 회관에서 「在中韓民族 說話의 研究」라는 주제로 학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에는 崔三龍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부소장이 「중국 조선족 백두산 설화의 의

미」를, 蘇在英 숭실대 국문과 교수가 「중국 조선족 설화의 특색」을 각각 발표했다.

檀國大, 베트남 하노이공과대와 자매결연·등양학 학술회의 개최

단국대는 지난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공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자매결연이 양교의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국가 간의 인종·이념적 장벽을 뛰어넘어 양국교류 확대의 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교는 지난 10월 26~27일 난파기념음악관과 동교 회의실에서 제21회 등양학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근세문화의 특성」 중 조선왕조 후기, ‘근대국어의 특징과 연구사 검사’에 중점을 두었다. 26일에는 김영수(등양학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전광현 외 5명의 교수가 각각 주제논문을 발표했고, 27일에는 남풍현(문리대) 교수의 사회로 김석하 외 33명의 교수가 전날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大,工大 3科 학사통합운영키로, 韓文研·法學研 학술발표회

서울대는 공대 전기 분야 3개 학과를 하나로 통합,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4학년부터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교과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기 계열 3개 학과가 성격과 내용이 비슷한데도 자기 다른 이름의 학과로 편성되어 있어 유사한 전공교과목이 각 학과마다 중복 개설되는 등 교과과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교수의 인력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또한 동교 한국문화연구소는 규장각 소재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 중세사회의 해체와 근대화 과정을 연구하는 규장각 연구사업의 중간점검으로서 지난 11월 8일 동교 문화관에서 관련학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후기의 사회와 사상」을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김종철(아주대)교수가 「관소리의 민중정서」, 이강욱(영남대)교수가 「문헌철화의 세계관」, 민찬(한국문화연구소)씨가 「우화소설의 계층의식」, 고영진(한국문화연구소)씨가 「禮學의 家學化」, 윤용출(부산대) 교수가 「요역제의 변동」, 박명규(전북대) 교수가 「民狀에 나타난 농촌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의 문학사적 특징과 사회적 제 문제를 규명하였다.

또한 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11월 22일 동교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의 법학교육—반성과 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전국의 법학관계 총·학장들이 다수 참석하여 법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방법론, 대학원 법학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과대학의 학과체계와 교과과정의 재검토 등 3가지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延世大, 東西研 학술회의 개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는 지난 11월 14일 동교 알렌관에서 '90년대 한·인도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3차 한·인도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측에서 국제문제연구소장인 에릭콘살베스와 델리대학의 크리스나 교수 등 4명이, 한국측에서는 김덕중 서강대 교수와 박종수 경상대 교수 등 4명이 각각 한국과 인도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동연구원은 지난 11월 25~26일 알렌관에서 영국 셰필드대학 한국연구소와 네빈제 한·영 학술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와 고등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브라이언 맥코믹 교수(셰필드대) 등 4명의 영국측 교수들과 이해경(신과대) 교수 등 4명의 동교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충기 연구위원이 논문을 발표했다.

濟州大, 해양과학심포지움 개최

제주대는 지난 11월 22일 해양연구소 주최로 함덕 해양연구소 회의실에서 '제주도 연안의 양식어업 현황과 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해양과학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번에 발표된 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 연안의 생물상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이영돈(해양연구소), 「제주도 연안해역의 해양수질 변동과 보존대책」—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 양식어업의 현황과 문제점」—고경범(양식협회), 「어류사육환경에 따른 질병대책과 문제점」—이창훈(제주수산연구소) 등이다.

朝鮮大, 교수재임용제 폐지

조선대는 지난 5월 교육부에 신청한 정관개정안 중 일부를 인가받아 이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왔는데, 개정된 정관은 중전의 교수 5년, 부교수 3년의 시한으로 재임용토록 되어 있던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진보적 교수에 대한 탄압구조로 악용되고 교수의 안정적 연구공토를 저해한다고 비판받아 온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한 것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中央大,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발표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는 지난 11월 29일 동교 제1캠퍼스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조선시대 외관제와 향촌자치제'라는 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서울시립대 이준희 교수와 목포대 이해준 교수가 「조선전기의 외관과 향촌자치제」를, 동교 김호일 교수와 박경하 강사는 「조선후기의 외관제와 향촌자치제」를 발표했다.

韓國敎員大,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교원대는 지난 10월 17~18일 동교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교원교육개혁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는 교원교육 발전방향 탐색

과 한국교육의 발전을 취지로 교원대 교육연구회와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회에서 주최한 것이다.

대회 첫날인 17일에는 현승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1세기를 위한 교원교육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하였고, 미시간주립대 Robert Floden 교수, 런던킹스대 Meg Maguire 교수, 주한 프랑스 대사관 Prillippe Salord, 일본 휴고교육대 야키야 쓰지노 교수, 북경사대 Fang Fu-Kang 총장 등이 각국의 「교원교육체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성균관대 김신중 교수가 「한국 교원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미시시피주립대 이철구 교수 등 외부 교수들과 국내 교수들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국·사립 사대, 교대 간의 협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안제시에 그치지 않는 문제해결의 구체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 공유가 있었다.

群山水專·禮山農專 단과대로 흡수·개편

교육부는 군산수산전문대와 예산농업전문대를 '92학년도부터 각각 군산대와 공주대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상대·창원대와 각각 통합키로 했던 통영수산전문대와 밀양농업전문대의 통합계획은 학생·교수·동문회 등의 의견 갈등으로 취소되었다. 이번 통합은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4년제대학 승격 공약에 따라 마련된 「국립 고등교육기관 개편계획」에 의거·시행된 것이다.

□ 교수 補職人事 □

- 高麗大
의무부총장 : 白承龍
- 釜山水產大
교무처장 : 진평
학생처장 : 신형일
대학원장 : 박구병
- 서울大
경제연구소장 : 鄭基俊
- 濟州大
교무처장 : 高南旭
학생처장 : 文斗吉
인문대학장 : 고원희
사범대학장 : 박규은
- 朝鮮大
기획처장 : 최철남
대학원장 : 구창환
법과대학장 : 김영휘
자연대학장 : 박복남
사범대학장 : 박성기
외국어대학장 : 정영수
산업대학장 : 서화중
미술대학장 : 이창주
공대학장 : 송철
이부대학장 : 정현상
중앙도서관장 : 고석태
- 中央大
제1캠퍼스 총무처장 : 이윤중
기획실장 : 홍기형
제1캠퍼스 학생처장 겸 신문사 주간 : 추현
교육대학원장 : 김종훈